

【 해외금융 뉴스: 일본 】

생보업계, 하반기 안정적 자산운용 기조 전망

- 최근 주요 생명보험회사들이 공개한 자산운용계획에 따르면, 올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국내채권 매입을 늘리는 등의 안정적 자산운용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.
 - 메이지야스다생명은 하반기에 약 4,000억 엔 규모의 국내채권을 매입하기로 방침을 정했으며, 국내외 주식투자 비중을 높이고 있던 니혼생명도 주식 비중을 상반기 수준으로 유지하는 대신 채권 매입을 늘리기로 함.
 - 다이이치생명은 10년 이상의 장기 국내채권 뿐만 아니라 환헤지 차원에서 외국 채권도 지속적으로 매입하는 대신 주식 및 펀드와 같은 위험자산 비중은 현재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자산운용을 계획하고 있음.
- 생명보험업계는 하반기 주식시장 상승 전망에도 내년도 새로운 재무건전성기준이 도입됨에 따라 국내주식 투자에 신중을 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, 외국 채권 및 아시아 신흥국의 주식 매입 비중은 점차 확대될 예정임.
 - 연말 닷케이지수가 1만 선을 돌파할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함에도 불구하고 생명보험회사들이 위험자산 투자에 신중함을 보이는 데에는 내년 솔벤시마진비율의 산출 기준을 강화하는 새로운 재무건전성 도입을 앞두고 보다 안정적인 자산운용이 요구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됨.
 - 또한 정부의 금융완화정책 유지 영향으로 하반기 장기금리가 0.7~1.4% 수준으로 예상됨에 따라 생명보험업계는 안정적이면서도 국내채권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외국채권 매입을 늘릴 것으로 전망됨.
 - 한편, 메이지야스다생명은 아시아 국가 주식을 약 500억엔 규모로 매입하기로 하는 등 생명보험업계는 수익성 확보 차원에서 경제 성장성이 높은 신흥국 관련 주식 비중을 점차 확대할 것으로 예상됨.

(로이터, 10/26)